

KEPCO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Family

2022. 03+04

Moving forward!

내일을 위한 생각! 멈추지 않는 열정!

성실과 열정이 빚어낸 최고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발전을 이끌어 온 한국전력기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발전소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전력기술

다양한 시각!



Perspectives!



2022 03+04

KEPCO E&C Family



통권 469호 2022년 3,4월호(격월간)

발행인 김성암
발행일 2022년 3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메일 miru@kepco-enc.com

인 쇄 화성에스지아이(054-773-7050)

04 에너지산업

연봉 1달러의 비밀

06 4차산업

자동차가 아니라 도로를 주행하는 로봇, TaaS의 시대가 온다!

08 기획기사

MZ세대와 소통을 위한 ‘함께하는’ 경영싹위원회

10 특별기고

덕산재를 걷는 내 마음

12 Brief News

ITER 토카막 주코일 전원공급장치 증설을 위한 설계사업 수주
두산중공업과 무탄소 발전산업 활성화 협약 체결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금융약정 체결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사업 준공 감사패 수상
금오공대와 ‘디지털융합공학 계약학과 설치’ 협약
2022년 특별 사이버보안 인식제고 교육 실시

14 한기인의 메아리

모두가 행복한 삶!

16 이달의 한기인

이재우처장, 임태식 처장

18 신입사원 소개

한국전력기술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22 슬기로운 회사생활

새하얀 도자기 위에 파아란 점 하나 _ 세라믹 도자기 만들기

24 퇴직자 연수기

제2의 인생 시작 우즈베키스탄 연수기

28 Team이 함께한 맛집탐방

SI사업그룹 밸브성능평가팀이 방문한 달반물반

30 우체통

나누는 기쁨, 베푸는 행복

32 직원사진 참여 마당

싱그러운 제주 풍경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

33 이 달의 한컷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34 Shall We Meet?

한기도담어린이집 이순애 원장

36 지역탐방

아이와 계절마다 가고 싶은 상주 나들이

38 갈등관리와 소통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갈등관리의 질을 좌우한다

40 Culture

영화 <인턴>

42 머니머니

저점매수(Buy-the-Dip)의 유혹

44 여행가자!

근대라는 테마로 엮어진 목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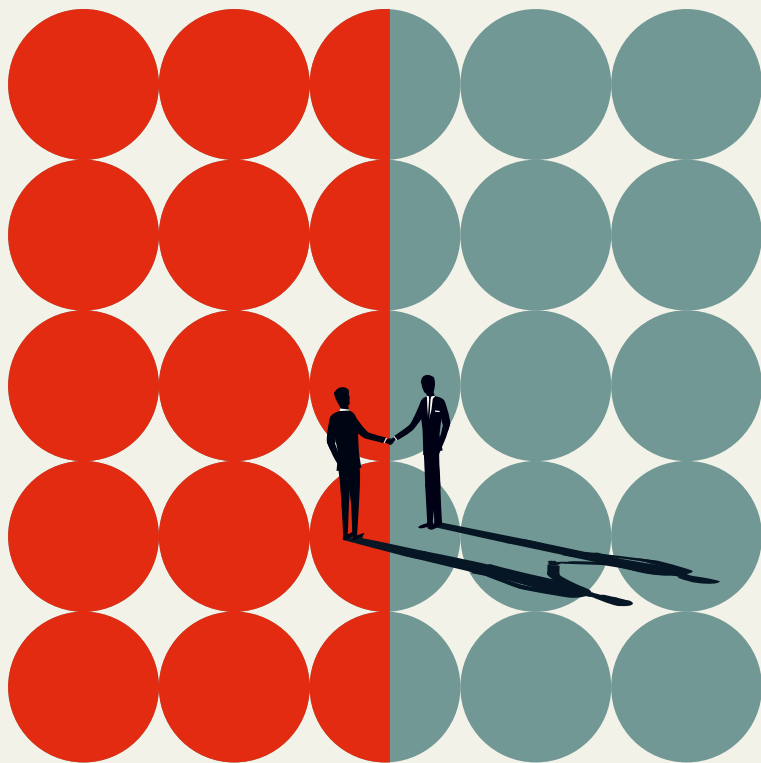
46 Editor's Letter

독자의견 등



연봉 1달러의 비밀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커 저커버그, 구글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등 수많은 IT 업체의 CEO는 고작 1 달러 연봉을 받고 일합니다. 회사를 성장시켜 주식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동기부여와 함께 자신이 받을 연봉을 직원들의 이익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상징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1달러 연봉' 관행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스톡 옵션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IT 업계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 달러 연봉'은 1970년대 미국의 한 위대한 기업가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그가 바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전설 '리 아이어코카(Lido Anthony "Lee" Iacocca)'입니다. 그의 일화를 한 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IT기업들이 미국의 산업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철강과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이 미국 산업을 견인하였습니다. 즉, 자동차 산업은 현재 IT산업과 같은 중요한 분야로 여기서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을 보유한 경영자들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리 아이어코카도 그들 중 한 명이지만, 그는 모든 경영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가로 여타 유명 경영자들과는 다른 기업가로 평가받습니다. 리 아이어코카는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이후 1946년부터 포드에 기술자로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이 공학과 적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영업부서에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전설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판매를 하면서 그는 56년식 포드 자동차를 3년간 매달 56달러만 내면 살 수 있는 '56 for 56'이라는 할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포드 자동차 판매량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때 리 아이어코카는 요즘 말로 하면 '영업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포드 자동차 창업자의 아들 헨리 포드 2세 눈에 띄어 제품개발부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개발한 것이 그 유명한 '머스탱'입니다. 머스탱은 이전 자동차들이 가진 각진 디자인을 탈피해 스포티한 유선형 디자인을 채택하였습니다. 트렌디함을 원하던 젊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며, 흔히 말하는 대박을 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당시 포드는 경쟁사였던 제너럴모터스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풍만범(順風滿帆)이었던 그의 커리어에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기획한 자동차였던 '포드 빈토'에 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에서 본인보다 더 존경받았던 리 아이어코카를 눈 안의 가시로 보고 있었던 헨리 포드 2세와 갈등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1978년 리 아이어코카는 포드 자동차에서 해고가 됩니다. 해고가 되자마자 타 자동차 기업에서 영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야구로

따지면 이적시장에 자유계약 대어가 풀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 그가 선택한 곳은 당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크라이슬러였습니다. 전문가 대부분이 그의 선택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리 아이어코카라 하더라도 파산 직전의 크라이슬러를 구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리 아이어코카는 파격적인 변화를 통해 위기의 크라이슬러를 구하게 됩니다. 먼저 그는 약 5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 중 2만 명의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을 단행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자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노조를 설득함과 동시에 연봉을 1 달러만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그는 35명의 임원 중 33명을 해고하는데, 이것은 경영 위기 상황속에서는 임원도 예외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짐과 동시에 비효율적인 회사의 명령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노조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크라이슬러를 정상화 시켰습니다. 아니 정상화를 넘어 당시 高부가 가치 상황에서 연비를 강조한 소형차 모델을 출시하는 등 상황적합적 전략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크라이슬러의 미니밴입니다. 그리고 성공 이후 그는 해고노동자들을 재고용하여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성공 전략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리 아이어코카는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면서 고객들의 니즈(needs)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능력을 통해 크라이슬러라는 회사를 구함과 동시에 그곳에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들도 함께 구하였습니다. '1 달러 연봉'은 그가 생각하는 전략이 통할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의 일화는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 줍니다. 보통 성공한 기업가는 '혁신성', '진취성' 그리고 '위험감수성'이라는 3대 요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정한 기업가 혹은 위대한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고객을 사랑하고 고객의 편의와 입장을 통해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고객지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사회에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객지향성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리 아이어코카였습니다.

한국전력기술도 지금까지 수많은 발전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기반시설들을 건설하였습니다. 한국전력기술 역시 앞서 언급한 리 아이어코카처럼 고객인 국민들을 위한 자부심과 애민(愛民) 정신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기업에게 고객은 국민과 우리 사회입니다. 현재 전력산업은 탄소위기로 인한 에너지전환과 국제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안정으로 큰 변화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일수록 혁신성과 진취성 그리고 위험 감수성이라는 기업가정신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에 더해 고객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기술은 현재가 아닌 내일, 아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진하는 위대한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E&C

자동차가 아니라 도로를 주행하는 로봇, TaaS의 시대가 온다!

테슬라는 지난해 8월 'AI Day'에서 범용인공지능 로봇 '테슬라 봇'을 발표했다. 전기차를 제조하는 테슬라의 이번 발표의 의미는 테슬라에게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닌 도로 위를 달리는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의미이다. 테슬라뿐만 아니다.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로봇 시장에 진출하는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현대자동차는 로봇 공학 업체 '보스턴다이나믹스'를 약 1조원에 인수하였다. 보스턴다이나믹스의 보안로봇 '스팟'을 비롯하여 배송과 물류 서비스에 이용할 로봇도 개발 중이다. 일본의 도요타도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자사 연구소에서 로봇공학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물류나 음식점 서빙 혹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이동 보조 수단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모든 것이 이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사람의 이동 그리고 물류의 이동 모두에 관여하여 기술과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CES 2022에서 현대자동차 정익선 회장은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에서 착안한 MoT(Mobile of Things)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모든 사물에 이동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물에 이동성을 부여하겠다는 MoT는 2017년 발표된 RethinkX 보고서에서 등장한 TaaS(Transportation as a Service)와 연관이 있다. TaaS는 사람과 물자 이동이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되어 운영하는 개념이다. RethinkX 보고서는 향후 차량 공유라는 소유방식 변화와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 혁신이 결합하면서 모빌리티 체계가 전체가 재편되리라 예측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경제적 원칙에 따라 지출을 결정하고, 현재 자동차 소유방식은 보통 총 보유기간의 4%만 운행하고 96% 시간은 주차장에 세워 놓는 비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점차 이동 수단에 있어서 직접 자가용을 구입하여 소유하기보다는 이동이라는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길 선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버스, 열차, 항공기는 서비스의 형태로 이를 구매한다. 왜냐하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철을 구매하여 소유하는 것보다 그 티켓을 구매하는 편이 경제적 이유에서 월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T기술의 발달과 공유경제 플랫폼 출현을 통해 자가용 역시 이러한 서비스 방식으로 변화하리라 예측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기존 완성차 제조업체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줄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 차량의 유희시간 감소와 운행시간 증가는 결국 기존 완성차 수요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RethinkX 보고서에 따르면, TaaS의 마지막 형태로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 발표 이후 운전대를 놓게 된 인간은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두고 사람들은 많은 상상의 나라를 펼친다. 과거에는 라디오나 음악을 들었다면, 이제는 대형화면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할 것이라면서, 자율주행의 발달과 더불어 OTT 서비스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진다. 안마의자를 설치한다는 반쯤 농담 섞인 예측도 나온다. 미래 이동수단이 어떤 형태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

해 속단하기는 힘들다. 아침의 지옥철을 겪은 사람이 안락한 개인공간을 포기하게 하기란 어렵다. 개인공간이 가져다주는 안락함과 쾌적함을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인간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기차의 등장과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완성차 시장은 이미 대전환기를 맞이했다는 점이다. 전기차로 전환이 내연기관에서 높은 기술력을 자랑했던 독일 기업들을 이길 수 있는 기회라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같은 하드웨어 수준에서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물류의 이동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는 듯하다. 또한 자동차를 넘어서 UAM(도심형 항공 모빌리티)과 전혀 다른 영역의 운송 수단까지 고려한다. 과연 자동차 업체들이 꿈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승자는 다른 엉뚱한 곳에서 나올지 모를 일이다. 물론 예측과 달리 전혀 다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E&C**

‘함께 하는’ 경영싹위원회

Vision



MZ세대와 소통을 위한

‘함께 하는’ 경영싹위원회



본사 17층 회의실에서 '제1차 '함께하는' 경영싹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첫 모임이니만큼 'Vision전도사' 김성암 사장님의 주도로 각자의 비전을 발표하는 Vision공유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각양각색의 계획과 목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해당 업무의 전문가가 되어 후배에게 모범이 되는 직원이 되겠다', '한기 여성 CEO가 되고 싶다'와 같은 당찬 포부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MZ세대에게 필수인 MBTI검사가 슬라이드에 나타나자 사장님도 자신의 MBTI검사 결과를 공개하여 이목을 끌며 딱딱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전환되었다.

경영싹위원회 위원들의 개성 넘치는 발표가 끝나고, 사장님의 비전 발표와 특강이 이어졌다. 사장님은 '계획-기록-실천'을 하는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목표를 세워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성취를 이뤄낸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기에 입사할 정도의 역량을 지닌 사람은 대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은 하지만 이를 기록하는데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진단하고, 수치를 중심으로 역행 스케줄에 기반한 실현가 능한 계획을 매 순간 기록하고 이를 롤링하는 것이 목표를 성취하는 길이라고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특히 과거 내가 남긴 비전에 대한 기록을 다시 보게 된다면 과거 내가 어떤 다짐을 하였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 상기하면서 'Vision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사장님 자신도 '이제 효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신입사원 시절 마음에서부터 '이런 처장이 되고 싶다', '이런 본부장이 되고 싶다' 등 중요한 전환점마다 남겨진 기록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고 한다.

경영싹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우리 회사 미래의 주춧돌이 될 젊은 세대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자 하는 바람 때문이며, 또한 젊은 직원들이 경영자로서 소양을 쌓아가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한기가 '미래를 그리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인문학적 소양이나 리더십, 위기관리 능력과 같은 경영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경영싹위원회를 통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젊은 직원들이 회사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하고 각자 모두 조직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경영싹위원회 위원들에게 밝혔다.

이날 워크숍이 끝나고 각자 소감 한마디씩 남겼다. 무엇보다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보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 참여한 이들이 모두 공감하였다. 향후 경영싹위원회 운영은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회사의 경영 현안 중 하나를 결정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누고 그 방법도 위원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장님도 경영싹위원회에서 도출된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경영에 활용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C**

덕산재를 걷는 내 마음

- 김천여행 -

김천金泉은 금을 캐는 우물泉이다.
 '금의 나라'로 아라비아까지 알려졌던
 신라 때부터 나라 안 손꼽히는 금 채굴지였다.
 과하주過夏酒 같은 명주가 빚어진 것도
 김천金泉의 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병자호란 이후 '금천'은 '김천'으로 바뀌었다. 전쟁을 도발한 오랑캐 청의 국호가 본래 '금'이었기 때문이다. 야만 족속들이 쓴 나라 이름을 어찌 아름다운 향토 지명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

산자수려한 풍광과 지조 높은 정신으로 이름 높은 김천을 찾아 발길이 이어졌다. 그래서 고개가 많았다. 사람들은 서울과 경상도를 잇는 추풍령, 새재로 이어지는 작점고개, 성주로 가는 별미령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금오산과 황악산까지 넘었다. 백두대간을 넘어 전라도로 오가는 덕산재도 있다. 오늘은 삼국 시대 선조들을 되새기며 덕산재를 넘어본다. 물론 덕산2리 온배미에서 출발해 수리봉과 투구봉을 거쳐 고갯마루로 내려오는 산길 7.2km를 걸을 수도 있다.

온배미는 산들에 둘러싸여 따뜻한 땅이라는 뜻이다. 사육신 사건 당시 연좌를 피해 구성면에 은거했던 김숙연金淑蓮의 후손 김풍金豊이 이거해 온 이래 김녕 김씨 대사공파 집성촌이 되었다. 온배미에서 8km쯤 떨어진 곳의 섬계서원刻溪書院도 단종 복위 사건 관련 유적지이다. 섬계서원은 1802년(순조 2) 공조판서 충의공 김문기 및 함께 순절한 그의 맏아들 영월군수 김현석을 제향하고, 후학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했다. 그 후 장지도, 윤은보, 서즐 3현을 추배했다.

경상북도 기념물인 섬계서원 경내에는 천연기념물 은행나무도 있다. 수령 500년가량, 높이 28m, 밑동둘레 12.5m, 가지 길이 동서남북 6.8m~13.4m나 되는 노거수다. 나무 아래에 서면 김문기를 비롯한 선비들의 언행일치 정신이 저절로 기려진다. 역사적 배경 덕분인지 덕산재 터밋에는 1907년 '효부 김해김씨 열부 경주이씨 양부인 사적 병견립비'라는 범상하지 않은 빗돌이 세워졌다. '병견립비'라는 어휘가 아주 낯설다. 알아보니 비석 하나에 두 분의 사적을 나란히 새겼다는 의미이다. 덕산리 지응룡의 전처, 후처 사이인 두 부인은 중병 중인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일로 당대의 칭송을 받은 여인들이다. 전처 김씨부인을 효부, 후처 이씨부인을 열녀로 다르게 표현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같은 효부인데 어째서 '효'와 '열'로 달리 의미부여를 했을까? 전처의 선행을 대를 이어 실천한 이씨부인의 선행은 시어머니에 대한 효이기도 하지만 남편에게는 열에 해당된다는 가치부여이리라.



왼쪽에 약수터 올라가는 길 이정표를 거느린 병견립비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윽고 덕산재 고갯마루를 향해 올라간다. 해발 644m 덕산재는 1,249m 투구봉에 견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숨이 차다. 고갯마루에 올랐다가 걸어서 다시 내려올 요량으로 '주치走峙 버스정류소' 앞에 세워둔 차가 자꾸만 눈에 들어온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까닭이다. 아무튼 내려올 때는 빠른 걸음으로 달리리라. 주치라는 지명 자체가 그런 사연을 담고 있다. '달릴 주走' '고개 치峙'로, 고개를 넘으려던 옛사람들이 덕산재에 널려 있는 산적들에 놀라 마을까지 달려서 도망쳤다는 전설이다. 전통사회든 현대사회는 공공의 적은 항상 도처에 널렸다는 말인가! 옛날에는 서민 약탈자들이 산에 있었는데 요즘은 도심에서 활보하는 차이밖에 없다는 것인가!

어두운 상념에 잠긴 새 어느덧 고갯마루에 닿았다. 웅대하면서도 조형미와 빛깔까지 예사롭지 않은 '경상북도 김천' 표지석이 맑은 하늘 아래 품을 뽐내며 나그네를 맞는다. 그 덕분인가, 높은 고갯마루인데도 바람이 따스하다. 과연 온배미답구나, 싶다. 김천은 72점이나 되는 지정 문화재를 자랑한다. 인구 250만 대구가 280점 보유하고 있는 데 전주면 김천이 4.5배 더 많이 가진 셈이다. 과연 '금천'이다. 앞으로 김천여행을 이어갈 계획인데, 자못 기대가 된다. [E&C](#)

KEPCO E&C N e w s

ITER 토카막 주코일 전원공급장치 증설을 위한 설계사업 수주

프랑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국제기구에서 발주한 ‘토카막 주코일 전원공급장치 증설을 위한 설계사업’을 수주하였다. 토카막 주코일 전원공급장치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토카막의 플라즈마 운전을 위한 필수 설비이며, 12대의 토카막 전자석 코일에 교류전원을 직류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장치이다. 본 사업은 반세기 동안 축적한 원자력발전소 설계 기술력과 10여년 동안 ITER 핵융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인정되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두산중공업과 무탄소 발전산업 활성화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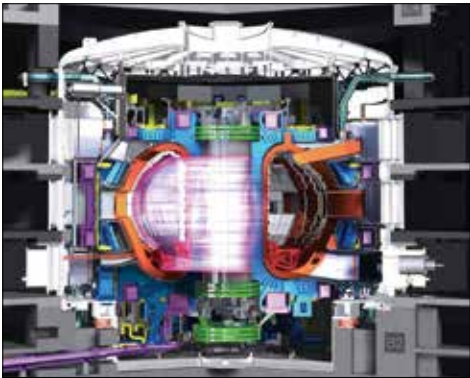
2월 16일 두산중공업과 ‘무탄소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원 두산중공업 공장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김성암 사장과 두산중공업 박홍욱 파워서비스 BG장을 비롯한 각 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청정 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 도입에 따라 무탄소 발전 분야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저장/활용분야에서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무탄소 수소-암모니아 혼소 및 전소 발전사업과 암모니아 개질 가스 발전 사업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과 기술교류, 사업개발 등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특히 암모니아 개질 가스 발전사업은 암모니아를 수소, 질소로 분해한 후 추출한 수소와 소량의 암모니아로 구성된 개질 가스를 연소해 수소터빈을 가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기술이다. 두산중공업은 암모니아 개질 설비, 수소 터빈 등 주기기 개발을, 우리 회사는 암모니아 개질 연계 가스 발전 플랜트의 종합 엔지니어링 기술(계통 연계 및 A/E 기술, 최적화 기술)의 개발을 맡게 된다.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금융약정 체결

한국전력, 한국중부발전, 현대건설 등과 함께 참여한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금융약정이 24일 체결되었다.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위치하며 100MW급(5.56MW x 18기) 풍력발전기 전량을 국산기종(두산중공업)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7년 SPC 설립을 시작으로 2020년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발전사업허가 취득, 2021년 우리회사 및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EPC 계약 체결을 거쳐 올해 착공,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자기자본 14%와 타인자본 86%로 구성된다. 이번 금융약정은 타인자본 조달이 완성되는 단계로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약정을 통해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된다.



ITER 토카막 주코일 전원공급장치 증설을 위한 설계사업 수주



두산중공업과 무탄소 발전사업 활성화 협약 체결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금융약정 체결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사업 준공 감사패 수상



금오공대와 '디지털융합공학 계약학과 설치' 협약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사업 준공 감사패 수상

회사는 12월 23일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로 한수원(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사업은 2016년 6월부터 5년 동안 증기발생기 제작기준 설정, 임시저장고 신축설계, 시공 및 인허가 기술지원 등 고도의 기술집약적 사업으로, 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이어 순수 국내기술로 수행하였다. 우리 회사는 증기발생기 교체의 설계 및 제작/시공기술지원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능력 및 프로젝트 관리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금오공대와 ‘디지털융합공학 계약학과 설치’ 협약

회사는 2월 15일 금오공과대학교와 ‘디지털융합공학 석·박사 학위과정 계약학과 설치’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금오공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김성암 사장과 금오공과대학교 곽호상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디지털융합공학 계약학과 개설, 디지털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전략사업을 수행할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한 시기에 특성화 공과대학으로 산업체 교육경험이 풍부한 금오공과대학교와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개설한다. 교육과목은 데이터통신망/사이버보안, 모바일 지능로봇, 머신러닝/딥러닝, 빅데이터 분석, 컴퓨터 비전 등 디지털 관련 과목과 현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CT융합 세미나, 강화학습 특론, AWP(Advanced Work Packaging) 등으로 구성된다. 회사는 이번 계약학과 개설로 정부의 K-뉴딜 정책에 부응하여 디지털 핵심 역량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산업구조 전환 시기에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통한 경쟁력 우위와 사업개발 역량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회사 전반의 디지털 역량강화 및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해 금오공대와 공동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아카데미도 개설할 예정이다.

2022년 특별 사이버보안 인식제고 교육 실시

2월 11일(금) ‘2022년 원설단 특별 사이버보안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이 더욱 지능화·고도화되는 가운데 임직원의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원자로설계개발단장을 비롯한 주요 직위자 등 64명이 참석하였다. 국가정보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한 교육에서는 ‘사이버위협 실태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최근 사이버위협 동향, 사이버공격 사례, 스마트폰 보안수칙 등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었으며, 업무 수행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속에서도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회사는 앞으로도 사이버보안 인식제고를 위한 더욱 다양한 활동과 함께 사이버위협으로부터 회사의 중요 설계 및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C**



설문조사

모두가 행복한 삶!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아진 듯 합니다. 이런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훈훈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실직으로 인해 통장 잔고가 571원 밖에 없는 한부모 아빠에게 피자를 무료로 준 30대 피자집 사장님 이야기와 환자들에게 선물을 보내며 완쾌로 답례를 해달라는 미담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작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먼저 웃어주고, 아무도 좁지 않는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작은 배려와 선행들이 그것이죠.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라고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웃사랑 실천과 따뜻한 미담 하나하나가 더욱 간절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집팀에서 우리회사에도 숨겨진 미담을 조사하였습니다.

한기 동료들 이야기를 읽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1. 내가 본 타인의 아름다운 행동은 무엇인가요?



■ 울곡119안전센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초순 새해가 밝은지 얼마되지 않았을때, 회사 앞에 있는 울곡119안전센터를 지나가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한마디와 함께 빵과 음료수를 건네주고 간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회사 직원인지 아냐고 물으니 한기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당연히 여기 직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소방관께서 소속과 성함을 물었으나 별것 아니라며 그냥 가셨다고 합니다. 울곡119안전센터 센터장님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대신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지면을 빌어 익명의 기부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은 한기인으로 괜히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기영 실장 (안전관리실)



2. 스스로에게 칭찬했던 일은 있었나요?



■ 원자로설계개발단에는 대전에 있는 '삼성지역 아동센터'를 지원하는 <한울림>이라는 자율적 후원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원설단 직원 25명이 참여해 매월 후원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삼성지역 아동센터는 대전에 몇 군데 없는 달동네 쪽방촌과 대전역 인근 아이들의 돌봄 기관으로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상 다양한 위험 환경에 대비한 안전한 돌봄과 평등한 교육 기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이 부장님, 황 상무님 그리고 다른 이 부장님이 별도로 케이크와 리모델링 경비도 지급해 주셨고, 올해 설과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이 부장님을 중심으로 떡국 떡과 빵 세트를 준비하여 센터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선생님 한 분이 확진되어 잠시 문을 닫았으나, 바로 재개하여 긴급돌봄 기관으로써 하고 후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안식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센터에 다녔던 아동이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간호 학원에 국비로 들어가서 졸업 후 병원에 취업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후원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만들고 이뤄가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소식에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생활 초반부터 후원을 시작해 벌써 25년 지났습니다만, 초기와 비교해 퇴직하시는 후원자가 많아 장학금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기인의 메아리를 통해 알려져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강태교 부장 (원설단 기계설계그룹)

3. 열었던 내 마음이 눈 녹듯 녹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지난 가을쯤이었던 것 같네요.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자 어느 날 아이가 고열이 나고 몸살을 앓는 듯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처지에서 아이는 조금이라도 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급한 마음을 안고 얼른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고 그날도 그렇게 막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쩌나 더디게 느껴졌는지. 신호등이라도 걸리면 언제 신호가 바뀌나 그 빨간등만 바라봤던 것 같네요. 병원에 도착해서 주차하고 빨리 내려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차 문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문콕이라고 하죠. 옆에 차를 보고 손에 힘을 반대로 켜올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부딪쳤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애가 우선이라 진료 예약과 접수를 마치고 다시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군요. 차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하니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신도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니 일단 차 상태를 보고 나중에 연락을 주신다는 말을 듣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일반 감기였고, 한숨 돌린 다음 집에 오니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가 주차를 잘해뒀더라면, 불편하게 내리지 않아도 되셨을텐데... 저도 세 아이의 엄마이기에 없던 일로 마음먹었습니다'라는 장문의 문자에 사려 깊음과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수리 비용같은 금전적인 것은 떠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으로 아마 작년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가장 훈훈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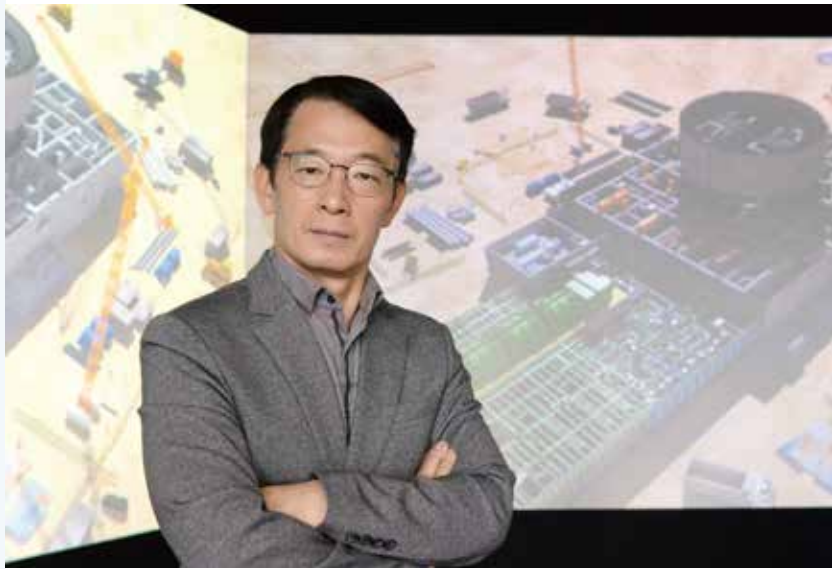
이찬희 대리 (글로벌마케팅실)



제47회 품질경영대회 국가품질상 수상

이재우 처장

품질안전처 이재우 처장은 2021년 11월 8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7회 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상을 수상하였다. 품질경영 성과 창출 및 확산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수여되는 품질경영 관련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포상이다.



수상소감을 물으니 무엇보다 29년간 회사에서 품질 관련 업무를 계속해 왔는데 그동안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스스로 뿌듯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번 수상은 UAE 품질 보증 업무를 사업 품질보증책임자로서 성공적 완수한 점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주효했다. 200페이지에 달하는 공적조서를 작성하고 실사와 인터뷰 등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동료들은 물론 경영진의 배려와 격려를 통해 수상까지 이를 수 있었다며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한다. UAE사업 품질보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 물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있어 처음 실시한 해외사업으로 발주처나 해외 엔지니어들의 요구에 접점을 찾아가면서 새로운 절차서를 만들어 내고 이를 국내에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특히 품질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공정과 비용보다 품질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외사업은 단순히 외화획득라는 관점보다 우리 직원들이 성장하는 기회였다”라고 답했다.

이재우 처장은 최근 부서장에 임명되었다. 부서장이라는 직책이 무겁다고 느끼면서도 부서원들과 격의 없이 지내고 싶다는 점을 밝혔다.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스스럼없이 편하게 다가가고 싶지만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에는 체통(?)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조금 자제를 하고 있다. 부서장이 되어 선배들이 걸어온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부서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할 맛 나는 부서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있다. 이재우 처장은 한기야구부 총무와 감독을 역임한 한기가 공인하는 야구광이다. 야구의 매력이 무엇이나고 물으니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긴장감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열정과 끈기!’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재우 처장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해요.”라고 덧붙였다. 그런 끈기와 열정 게다가 팀워크와 소통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일을 못 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런 점에서 후배들에게 한마디 말을 전한다. 요즘 신입사원들이 매우 스마트하고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어 대견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구 한 구절을 들려주고 싶다고 한다.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 여전히 이 시를 읽으면 처음 출근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며 가슴이 설렌다는 이재우 처장. 후배들도 초심을 간직하고 그 가슴 떨림과 열정을 간직했으면 하는 것이 작은 바람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그 마음이 청춘이면 젊다고 했던가. 그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앞으로도 한기의 주춧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마친다.



제56회 전기의 날 전력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임태식 처장

전력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은 국가전력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재를 발굴하고 포상하여 전력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공적 홍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인 사회적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이다. 2021년 제56회 전기의 날, 에너지신사업본부 건설사업그룹 임태식 처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임태식 처장은 입사 30년 차의 베테랑으로 입사 초기에는 원자력본부에 소속되어 월성 2호기 건설에 참여하였다. 이후 화력발전 부문에 배치받아 현재는 사업책임자로 근무 중이다. ‘열정’과 ‘솔선수범하자’라는 생각으로 일해왔던 결과들이 인정 받은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임태식 처장은 우리회사같은 엔지니어링 회사의 업무는 여러 부분을 모아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니꺼 내꺼 따지지 않는 협업정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업무를 하다보면 우리 회사의 일은 업역(業域)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해나간다는 자세로 양보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 즉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처리해 나간다는 자세로 일을 해야 수월히 완수할 수 있다. 게다가 자신의 업무 이외에도 연관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면 큰 틀에서 업무를 조망하고 이는 곧 매니저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비슷한 관점에서 자기계발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꺼낸다. “요즘 ‘워라벨’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와 함께 젊은 세대들은 스스로의 역량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면서 후배들에게 “일 욕심을 가져라!”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에 오래 남아 일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다른 사람의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도와주면서 배우고,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커리어를 쌓고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하길 바란다고 조언한다.

취미는 중학교 때까지 정구 선수로 뛴 전력이 있어 테니스와 같은 구기종목을 즐긴다. 산에 나들 캐러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는 최근 시골집에 텃밭을 일구는 재미를 붙였다. 어머니가 계시는 시골집에 농막을 수리하여 땅콩, 고구마를 비롯한 채소류를 기르고 수확한다. 필자에게도 수확한 고구마를 보내주겠다며 수확한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한다. 솔선수범과 함께 일에 대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임태식 처장을 만나보았다. **E&C**

한국전력기술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신입사원들에게 묻습니다. ① 좌우명
② 앞으로의 포부

Global Leading Energy
Solution Partner



1. **강도혁** (전공 : 전기)
① 시련은 날 더 강하게 만든다.
② 신뢰받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2. **곽이서** (전공 : 전산)
① 말 보다는 행동으로!
② 전문 성을 키워 국민 삶에 기여하자!

3. **곽재룡** (전공 : 기계)
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② 어디든 잘 적응하는 스펀지 같은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4. **구기홍** (전공 : 기계)
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② 오늘보다 발전하는 내일의 내가 되겠습니다.

5. **권민상** (전공 : 전산)
① 오늘이 모여서 내일을 빛나게 할거야!
② 에너지의 성공적인 디지털화를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6. **권혁준** (전공 : 계측)
① 원하는 것을 지금 시작해라.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는다.
② 전문가가 되어 미래를 이끌자.

7. **김민범** (전공 : 기계)
① 차분하게, 치열하게, 겸손하게.
② 신뢰할 수 있는 기계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8. **김선중** (전공 : 토목)
① 중석물축(中石沒鐵).
② '한국전력기술'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열심히 배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김성은** (전공 : 안전)
① 행운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② 선배님들을 본받아 끊임없이
성장하겠습니다.

10. **김영찬** (전공 : 원자력)
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② 말은 일 성실히 수행하고 공부하여
성장하겠습니다.

11. **김유민** (전공 : 전기)
① 순간을 즐기자.
②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12. **김윤규** (전공 : 기계)
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
② 믿음직한 선배이자 후배가 되겠습니다!

13. **김윤주** (전공 : 계측)
① 행복하게 살자!
②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일 잘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14. **김의현** (전공 : 사무)
① 후회하지 말자.
②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15. **김인지** (전공 : 건축직렬)
①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말자.
②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는
열정적인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16. **김재환** (전공 : 토목)
① 사람은 모두 다르다.
② 구조기술사 따보자!

17. **김정민** (전공 : 사무)
① 멈추지 말고 다음 일을 생각하라.
② 범용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되겠습니다.

18. **김종민** (전공 : 정보관리)
① 주위를 돌아보며 살자.
② 늘 성실하게 공부하자.

19. **김주리** (전공 : 전산)
①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②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김준영** (전공 : 전기)
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반은 온 것이다.
② 퇴직 전까지 100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21. **김지연** (전공 : 사무)
① 항상 1등을 목표로 해야 2등이라도 한다.
② 매 순간 열심히 임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22. **김지환** (전공 : 기계)
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력을 쌓다 보면
언젠간 봄날이 온다.
② 선배님들이 땀뻘뻘 땀아 놓으신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겠습니다.

23. **김현진** (전공 : 소방)
① 오늘보다 멋진 내일의 나!
②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24. **김형한** (전공 : 계측)
①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또 누군가의 꿈이 된다.
② 항상 겸손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가지고
회사의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비전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25. **남성일** (전공 : 기계)
① 적극적인 삶
② 굵고 길게 가겠습니다.

26. **류지민** (전공 : 사무)
① 주체적인 삶을 살자.
②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27. **문희승** (전공 : 기계)
① Be water
② 기술사 취득과 전문성 확보 / 국민 삶의 질 제고

28. **박나희** (전공 : 기계)
① 한 마리의 파리라도 최선을 다해 잡자.
② 열심히 물어보며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29. **박상현** (전공 : 기계)
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자.
② 업무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여 빠르게 익히며
미래의 삶을 설계할 것 입니다.

30. **박재한** (전공 : 사무)
① 그림에도 불구하고
②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31. **박서연** (전공 : 기계)
① 모두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자.
② 한국전력기술에서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발전소를 설계하고, 이를 알리겠습니다!

32. **박세진** (전공 : 사무)
① 생각하고 행동하자.
② 회사 사업을 잘 뒷받침 할 수 있는 사무가 되자!

33. **박세홍** (전공 : 토목)
① 차라리 젊은 날에 독약을 마시든 하라.
② 열심히 배워서 남 주겠습니다.

34. **박우석** (전공 : 전산)
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②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자.

35. **방제희** (전공 : 사무)
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자.
② 배우고 성장하여 조직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36. **배소영** (전공 : 공정)
① 우리 영원히 살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자.
②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PM이 되겠습니다!

37. **배재훈** (전공 : 기계)
①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② 열심히 배워 제가 쌓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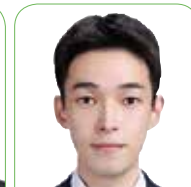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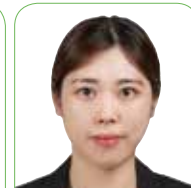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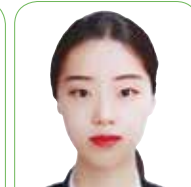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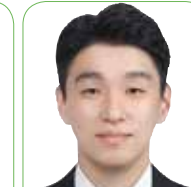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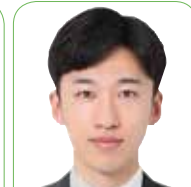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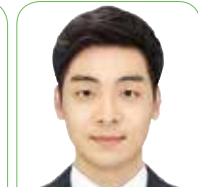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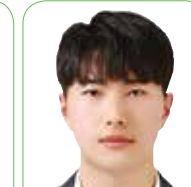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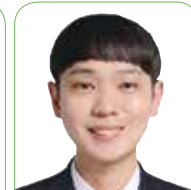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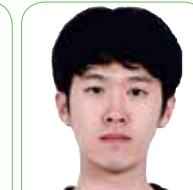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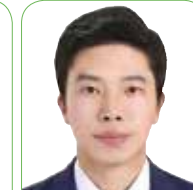
38. **성은희** (전공 : 화공)
① 계속 도전하자.
② 46기 화이팅!! 한전기술 화이팅!!

39. **소현섭** (전공 : 원자력)
① 과거 일은 좋았으면 추억이고, 나뻐오면 경험이다.
② 한국전력기술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인 직원이 되겠습니다...!!

40. **손소민** (전공 : 전기)
① 당당하게 살자.
②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화이팅하겠습니다.

Technology for Earth,
Energy for Human



 41. 손종영 (전기)	 42. 손종욱 (소방)	 43. 송지섭 (사무)	 44. 송희영 (기계)	 45. 신성욱 (안전)		
 46. 안상원 (기계직렬)	 47. 안예은 (원자력)	 48. 안형민 (계측)	 49. 양정모 (계측)	 50. 여민기 (토목)	 51. 오유진 (사무)	 52. 오현묵 (토목)
 53. 우도윤 (전기)	 54. 유나영 (공정)	 55. 이민규 (전기)	 56. 이민재 (기계)	 57. 이승훈 (사무)	 58. 이시현 (사무)	 59. 이준규 (기계)
 60. 이창한 (기계)	 61. 이하연 (계측)	 62. 이혜준 (사무)	 63. 임성현 (계측)	 64. 진명환 (원자력)	 65. 전성탁 (전기)	 66. 전하나 (기계)
 67. 정연욱 (환경)	 68. 정진호 (원자력)	 69. 조성민 (전기)	 70. 최남규 (사무직렬)	 71. 최보근 (건축)	 72. 최보근 (원자력)	 73. 최수연 (사무)
 74. 최인혜 (사무)	 75. 최재원 (원자력)	 76. 하재선 (원자력)	 77. 허원준 (사무)	 78. 허지원 (전산)	 79. 황유림 (화공)	 80. 황태로 (토목)

41. **손종영** (전공 : 전기)

- 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 ②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42. **손종욱** (전공 : 소방)

- ① 존경과 예의를 갖추자.
- ② 소방기술사 취득하고 No.1 소방 엔지니어 되자!

43. **송지섭** (전공 : 사무)

- ① 행복해서 웃는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겁니다.
- ② 매력적인 사람이 되자.

44. **송희영** (전공 : 기계)

- 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 ② 고통을 견뎌내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내자!

45. **신성욱** (전공 : 안전)

- ① 행복하게, 자신감 있게 살자.
- ② 최고의 안전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46. **안상원** (전공 : 기계직렬)

- 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 ② 미래형 발전소 설계를 책임지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47. **안예은** (전공 : 원자력)

- 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修身齊家 治國平天下)
- ② 스펙트리스트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48. **안형민** (전공 : 계측)

- 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자.
- ② 매일 한가지씩 의미있는 일을 하자.

49. **양정모** (전공 : 계측)

- ① 후회없는 삶을 살자.
- ② 한국전력기술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것 입니다!!

50. **여민기** (전공 : 토목)

- ①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실천하자.
- ② 전문성을 지닌 토목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51. **오유진** (전공 : 사무)

- ① 행복하게 살자.
- ② 적극적인 자세와 배우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52. **오현묵** (전공 : 토목)

- ① 결과로 증명해 내지 못하면 노력은 비참해진다!
- ② 입사 후 1년이 평생을 간다. 초심을 잃지 말자!

53. **우도윤** (전공 : 전기)

- 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자.
- ② 해외원전수출에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54. **유나영** (전공 : 공정)

- ① 수처각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 ② 주어진 자리에서 스스로의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55. **이민규** (전공 : 전기)

- ① 많은 실패 속에 나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② 한국전력기술 전기분야에 입사하여 발전설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56. **이민재** (전공 : 기계)

- ① 항상 열심히하자!
- ②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자!

57. **이승훈** (전공 : 사무)

- ①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주변을 살피고, 소처럼 묵묵하게 나아가자.
- ② 늘 기본에 충실하며 전문성을 갖춘 한기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8. **이시현** (전공 : 사무)

- ① 성공이란 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력의 결과이다.
- ② 매일 조금씩 더 성장해나감, 한국전력기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59. **이준규** (전공 : 기계)

- ① 받은 사랑에 보답하며 살자!
- ② 동료들과 함께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60. **이창한** (전공 : 기계)

- ①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자.
- ② 항상 앞을 바라보며 발전해 나가자.

61. **이하연** (전공 : 계측)

- ① 큰 꿈은 깨진 조각도 크다.
- ② 평생직장 한기 가즈앗

62. **이혜준** (전공 : 사무)

- ① 후회없는 삶을 살자.
- ② 회사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겠습니다.

63. **임성현** (전공 : 계측)

- 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자.
- ② 전문성과 동료애, 두 가지 토끼를 잡겠습니다!

64. **진명환** (전공 : 원자력)

- ① 당만을 품고 겸손히 차근차근
- ② 잘해서 끝까지 간다.

65. **전성탁** (전공 : 전기)

- ①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이자.
- ② 일은 1인분하고 공부하여 보탬이 되는 신입이 되겠습니다.

66. **전하나** (전공 : 기계)

- ① 행복은 습관이다.
- ② 꾸준히 노력하여 항상 성장하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67. **정연욱** (전공 : 환경)

- 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 ②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68. **정진호** (전공 : 원자력)

- ① 인생은 짧고 해볼 만한 건 많다.
- ② 한국전력기술에 없어서는 안될 직원이 되겠습니다!

69. **조성민** (전공 : 전기)

- ① Go Slow
- ② 전기분야 미래의 스펙트리스트가 되어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70. **최남규** (전공 : 사무직렬)

- ① 고민하기전에 시작하자!
- ②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받아 열심히 공부해 전문성있는 한기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1. **최보근** (전공 : 건축)

- ① 도전하자. 포기하지 말자.
- ② 최선을 다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72. **최보근** (전공 : 원자력)

- ① Win or Learn
- ② 한기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73. **최수연** (전공 : 사무)

- ① 열심히 살자.
- 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 **최인혜** (전공 : 사무)

- ① 넓게 알고, 깊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 ② 신뢰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75. **최재원** (전공 : 원자력)

- ① 실패는 있어라.
- ② 더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를 만드는 한기인이 되겠습니다.

76. **하재선** (전공 : 원자력)

- ① 수치화하지 않으면 증진할 수 없다.
- ② 내가 설계한 원전으로 인류에 공헌하자!

77. **허원준** (전공 : 사무)

- 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자.
- ② 항상 밝은 얼굴로 인사하며 배움에 임하겠습니다.

78. **허지원** (전공 : 전산)

- ① 안되면 되게 하라!
- ② 보안 및 빅데이터 전문가로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79. **황유림** (전공 : 화공)

- ① 후회하지 말자.
- ② 화공기술사

80. **황태로** (전공 : 토목)

- ① 도태되지 말자.
- ② 팀원들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스펙트리스트

새하얀 도자기 위에 파란 점 하나 _ 세라믹 도자기 만들기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도자기 공방을 찾았다.

김천혁신도시 울곡유치원 인근 카페도 겸하고 있는 '미엘'이라는 공방이다.

오늘 체험을 함께할 열정 넘치는 한기인 4명과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선생님이 우리를 반긴다. 작업대 위 4명이 작업할 초벌구이 백자 물병과 잔이 나란히 놓여있다.

오늘 과제는 델프트 기법*을 이용한 도자기 완성하기!



먼저 선생님 지시에 따라 연필로 도자기 위에 밑그림을 그린다. 지우개로 지워도 되고 나중에 도자기를 구우면 사라지기 때문에 겁먹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한기인 아닌가? 도면에는 누구보다 깐깐하다. 작업을 시작하자 갑자기 정적이 감돈다. 눈빛에 비장함마저 감도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각자 엄청난 집중력으로 도자기에 열중한다. 도면이 얼추 완성되자 색을 입힌다. 비록 전통 델프트 기법을 따라 파란색 계통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자신만의 색 조합도 영롱하다. 방해될까 무서워 옆에서 선생님에게 도자기 강의를 듣는다.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 들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거나 문턱이 높지 않다는 것. 어느덧 시간이 지나 하나 둘 완성되었다고 손을 든다. 그리고 침묵이 깨어지고 어느새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제 서로의 작품을 구경하기 바쁘다. 그러면서 '딸아이에게 선물하려 한다', '나만의 도자기를 가지고 싶어서 만들었다' 등 저마다 사연을 공유한다. 정리하고 공방을 나설 때에는 언제 이렇게 친해졌나 싶을 정도. 각자 만든 도자기가 가마에 구워져 완성되기까지는 조금 시일이 걸린다. 내 작품이 어떻게 완성될지 설렘 반 아쉬움 반을 뒤로한 채 공방을 나선다.

* 델프트 기법은 네덜란드 델프트 지방의 도자기 제작 방식에서 유래하였다. 중국산 도자기 무역으로 유명했던 델프트는 중국의 청화백자를 모방하여 제작하였지만 청화백자보다 굵은온도가 낮아 암청색이 더욱 강조된 델프트 도자기가 탄생하였다. 생활용 도자기에 그친 것이 아닌 타일에 그림이나 문양을 넣고 구워서 집안에 장식하였다.



임지현 사원

원데이클래스에 관심이 많았지만 여러 제약으로 망설이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탈 게시물을 보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원데이클래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잠시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힐링이었습니다. 3시간 만에 도자기를 어떻게 완성하나 궁금했지만 초벌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었습니다. 동기와 고민하다 각자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완성하고 보니 3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품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벌써부터 두근두근 기대됩니다. 자주 마주칠 기회가 없었던 동기와 다른 사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임태훈 대리

원데이클래스 공지를 보고 딸에게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어 신청하였습니다. 아이 사진을 보고 둥근 물병에 붓으로 따라 그리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물병에 모든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아 넣었습니다. 찻잔에 그려 넣을 때에는 방전되어 동기의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완성했지만요.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물병과 찻잔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참 의미있었습니다. 얼른 완성품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가족에게도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기회를 준 회사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박수빈 사원

도자기에 그림을 그릴 때 지우개로 연필 자국을 지울수 있고, 물감도 물티슈로 지울 수 있어 신기하기도 하고 부담스럽지 않고 손쉽게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리려고 하니 어떤 그림을 그려야할지 막막하였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여러 도안을 참고하여 마침내 완성하였지만 뭔가 2% 부족한 느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도움의 손길을 청하니 뭔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변신! 마음의 짐을 덜어낸 느낌입니다. 가마에 구운 완성품을 받았을 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쁜 모습이라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클래스는 어떤 것이 진행될지 기대됩니다. 다른 사우님도 많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김연 대리

평소에도 이런 체험활동을 즐겨 주말을 이용하여 스테인드글라스나 제과제빵 등의 원데이클래스를 수강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신청자가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반쯤 포기하고 있었지만 설연휴 본가에서 쉬고 있는데 연락을 받아 신나는 마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파란색을 이용해 잔 속에 바다를 표현하고 그 위에 떠있는 달을 그려넣을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다보니 알게된 것이지만 적당한 강약조절이 중요하더군요. 함께 체험에 참가한 네 분 모두 각자의 개성을 담아 그림을 그려서 다른 분들의 작품을 보는 것도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김천에서 이런 체험 공간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게다가 직원들을 위해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우리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생겨나는 하루라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C



MIEL 미엘도자기카페
주소 : 김천시 용전4로1길 20
사전예약 필수 / 6인 이상 체험 가능

KOICA는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공공행정, 교육, 농림수산, 보건의료, 기술환경 에너지 5개 분야 다양한 직종의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을 선발하여 30여개국에 파견하고 있다. 한기 가족 최대식 처장이 퇴직 이후 봉사단에 선발되어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되었던 연수기를 편집부에 보내왔다.

제2의 인생 시작

우즈베키스탄 연수기

사마르칸트 직원훈련원

나는 사마르칸트 직원훈련원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사마르칸트 직원훈련원은 KOICA에서 우즈벡에 지은 5개 직원훈련원 중 하나로 2016년 완공되어 현재는 우즈벡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취업률이 90% 이상으로 우즈벡에서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원훈련원은 전기전자과, 자동차과, IT과 그리고 용접과 4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고 학생은 약 300명 정도이다. 현지인 교사와 직원 7-8명과 한국인 단원 4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는 전기전자과에 배정이 되었고 수업은 PLC조립, 전자장비수리, 전기배전, 모터조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현재 우즈벡 산업 근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경험한 발전소 설계 경력을 바탕으로 가르쳐도 교사나 학생이 이해할 정도의 수준은 아직 아니다. 나는 대학시절 배웠던 전자학과의 기초인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배선 등을 교육하였다. 발전소 설계 경험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그 단계까지는 그들에게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곳 사마르칸트에는 한국 열풍이 한창이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가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곳 직원훈련원에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100명이 넘으며 한국어 교사만 7명이다. 교사들이 결강할 때 땀땀 교사로 들어가 한국어를 가르쳤다. 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물어보고 한국과 관련한 퀴즈를 내고 잘한 학생들에게 문구류를 선물해주기도 하였다. 직원훈련원에 다니는 대부분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넉넉치 못하다. 시골에서 올라와 부모님이 보내주는 돈(많게는 60만 숨 = 7만원 상당)으로 하숙을 하며 지내고 5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한창 20대 청춘을 즐길 나이인데... 학생 중 3명을 나름의 기준으로 뽑았다. 남학생에게는 우즈벡어를 가르쳐주는 명목으로 장학금(?)을 주었다. 그 학생은 나에게 한국어 지도를 받고 한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여학생에게는 주



말에 집안청소를 부탁하였다. 함께 정리정돈을 하고 장학금(?)을 주었다. 물론 학생들에게는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설명하였지만 조금 높은 급료를 지급하는 편이었다. 청소와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집에서 한식을 만들어 주거나 외식도 시켜주었다. 그들이 가진 한국을 향한 꿈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

직원훈련소에는 행사가 많다. 내부 행사로 입학식, 졸업식, 시험, 기능경진대회 등이 있다. 외부행사로는 교보재 경진대회, 외국 기업인 방문, 한국 대사관 견학 등이 수시로 진행된다. 특히 TV촬영도 자주 이루어지는데 이때마다 나는 얼굴마담으로 참석했다. 외국인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내 자리는 항상 앞에 위치하고 시상식에도 참석해야 했으며, TV인터뷰는 물론 인사말도 잊지않고 해야했다. 게다가 직원훈련소 교사나 관계자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자주 참석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고 많은 친인척과 주민들이 참석하여 동네 잔치를 치른다. 사마르시 인근 시골에 많이 다녀왔으며 한번 참석하면 4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했다. 외국인을 좋아하는 축하객들 앞에서 축하 인사도 하고, 춤도 추고, 동네 나이드신 분들이 따라주는 술도 마시고, 함께 사진도 찍고, 댄서들에게 기부금도 납부하고, 시간은 잘 가지만 너무 길다.

Uzbekistan
Samarkand





우즈베키스탄 축제

우즈벡에서 축제는 빠질 수 없다. 귀국하기 전 Ko'pkari축제와 새해 명절 축제인 나브루브에 다녀왔던 기억을 회상해본다. 2월 말 다녀왔던 Ko'pkari축제의 첫 광경은 정말 그림과 같았다. 나무 한 그루 보이지않는 조그마한 산과 언덕에 겨울을 이겨낸 잔디들이 파랗게 싹을 돋기 시작한 풍경은 그야말로 절경이었고 건너편 산에는 시골 농가 두어채가 있어 거기서 사람들이 앉아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래에 위치한 평지에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200필 이상으로 보이는 말들이 보였다.

축제에는 Ko'pkari라는 행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전날 죽인 양에 소금을 채워서 그것을 공처럼 사용하는 게임이다. 본부석 앞에 원을 그려놓고 그 양을 트랙터에 싣고 다니다가 내려놓으면 말을 탄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서 말에 싣고 서로 경쟁하며 빼앗아 원에 가져다 놓으면 최종 승리자가 된다. 구경을 오기 전 직업훈련소 원장이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우리가 앉은 언덕에 수시로 말을 몰고 빠른 속도로 경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위험했지만 그래도 이곳 사람들은 웃으면서 잘 피하고 있었다. 익숙한 모양이다.



나브루즈 축제는 이슬람의 새해 축제로 본래는 3월21일에 열리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에서 축제를 금지시켰고 Urgut에서는 일주일 앞당겨 이곳에서 하였다. 새해 명절행사는 다양했고, 많은 볼거리와 많은 음식이 준비되었다. 운집한 사람이 약 5만명 가량 된다고 들었다. 축제 장에서는 결혼한 신부들이 입구에 모여 앉아 어른들이 오면 하얀 면사포를 두 손으로 잡고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 몽골에만 있는지 알았지만 이곳에서도 Yurt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음식을 먹고 이야기하는 여성들, 그네 타고 노는 젊은 여학생들, 침상에 모여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나이든 사람들. 그러나 이곳은 여성과 남성이 분리되어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한다. 여자 어린 아이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춤을 추었고, 전통무술인 Kurash는 어린아이부터 학생 청년까지 다양하게 참석하여 대련을 하였다. 점심은 사하르사브즈 넘어가는 산 정상 인근 경치 좋은 식당에서 탄드르에 구운 양고기를 먹고 기념품을 몇 개 챙긴 후 귀가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되었던 KOIKA봉사단원 모두 한국에 일시 귀국하였다. 귀국 당시 우즈벡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를 치료할 병원과 장비, 의약품 등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코이가 사무소에서 봉사단원 전체를 우즈벡 항공으로 귀국시켰다. 귀국일정은 그리 순탄한 편은 아니었지만 다른 나라의 봉사단원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었다. 코로나로 앞당겨진 귀국으로 일련의 우즈벡 봉사기 끝을 맺는다. **E&C**

Navruz



SI사업그룹 밸브성능평가팀이 방문한

달반물반



오늘은 SI사업그룹 밸브성능평가팀이 맛집탐방을 떠나는 날이다.
 일전 회사 포탈에 맛집탐방을 모집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부장님 식사 한번 하시죠'라는 말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매일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기는 하지만 가끔 밖으로 나가 함께 기분전환 하면서 서로간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친목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주까지 계속되었던 맹추위가 이번 주는 웬일인지 조금 풀렸다.
 그래서인지 햇살도 보기 좋았고 회사에서 출발할 때부터 마음이 들뜨게
 한다. 간혹 드라이브를 가는 오봉저수지를 동료와 함께 차를 타고
 둘러본다. 어느덧 오늘 맛집탐방 목적지 달반물반에 도착했다.
 호수 위에 비치는 달 한 조각이 생각나는 이름.
 멋진 호수 풍경을 바라보며 멋진 이름을 상상하였다.



달반물반은 한정식 집으로 우리는 삼산이수 B코스를 주문하였다. 한정식이라 방문하는 사람
 들에 따라서는 조금 부담이 될만한 금액이기는 하나 런치코스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
 다. 그러면 식사가 나오기 전 막간을 이용하여 우리 팀 소개를 해보자. 우리 밸브성능평가팀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 능동밸브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팀이다. 신규
 원전 운영허가 전에 평가를 완료하는 규제업무 중 하나이다. 가동 원전의 경우 노후화된 대상
 밸브를 신규 밸브로 교체할 때 필수 업무이기에 사업주인 한수원으로부터 업무 의뢰가 폭주하
 고 있다. 그래서 우리 팀 모두가 매우 바쁜 일정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 일에 자부심을 품고 일
 하고 있다. 오늘은 일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잠시 여유를 가져본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밸
 브 성능평가 팀장만이 아니라 침수(PSA)팀장도 겸하고 있는 장진아 차장이 해외원전인 BNPP
 1~4호기 현안 업무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 일요일 장기간 해외 출장을 떠난다. 현지에 업무
 가 산적해 있는 만큼 환송회 겸 팀원들이 모였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다. 접시에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올려져 있는 음식들이 순서대로 정갈하게
 나온다. 조미료와 소금을 적게 사용하여 담백하면서도 입맛을 돋우는 매력이 있다. 반찬은 어
 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맛있다고 느껴진다. 비록 특색이라고 할 것이 없지만, 오히려 튀지 않
 면서도 한 상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매력이 있다. 무엇보다 한 술갈 뜨고 호수를 바라보는
 풍경이 그 무엇보다 감칠맛나는 조미료이다. 마음속까지 뭔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식당 벽에 적혀있는 멋진 시 한 수 음미한다. '모두 다 안으려고 하리 낮춘 물의 마
 음,' '더 멀리 비추고자 높이 솟은 달의 마음,' '두 마음 하나가 되어 호수는 달반물반 나 이미 나
 를 잊고 너 또한 널 떠났으니.' 우리 팀도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 달반물반 되었으면... 곧 지역
 만리 잠시 떠나는 팀장에게도 응원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 보낸다. 오늘 함께한 장진아 팀장, 이
 제욱 차장, 오태경 과장 그리고 나 김봉환 부장 서로 직급과 나이는 다르지만 모두 한마음 한뜻
 으로 열심히 일하자 다짐해 본다. E&C





나누는 기쁨, 베푸는 행복

-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며 눈 내리고 빗소리 듣는 걸 좋아했어요. 오십 중반 제주도 내려가 작은 어선 몰고 바다낚시 하는 꿈을 꾸니까, “그 꿈이 동경인가요, 간절한 소망인가요?”, “늘 꿈꾸면 그게 어디에 해당하나요?” 그런 대화가 오고 갔다. 1984년 모슬포에는 수직 암벽이 많아 유격훈련을 거기서 한 보름 정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제주도는 현재의 테마파크와 펜션이 즐비한 풍광과는 무척 달랐다.



먼저 박두수 복지국장 자리를 찾아갔을 때 머리 희끗한 장년이라 무의식중 생각했던 것 같다. 그걸 천연 파마 또는 양배추 인형 머리라 하는지 머릿결이 곱실곱실한 청년 얼굴이 나타났다. 2013년도 고졸 공채로 한기에 입사, 근무 9년 차이며 노조 활동 이전에는 토목, 전기, 설계정보, ICT Solution 등 여러 부서를 돌면서 업무를 맡았다.

단도직입 들어간다. “유기 동물이라면 개가 아닌 왜 고양이를 선택했나요?”, “주인 없으면 불안을 느끼는 개는 형편상 어렵고 마침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마리 더 추가했습니다. 고양이는 외로움을 잘 견딥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배고픈 길냥이 먹이를 챙겨주는 사람, 고양이 머리에 못을 박거나 독약을 뿌려 죽이는 사람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박 국장은 “고양이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던 것은 아닙니다”로 단언한다. 못살 들은 피투성(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으로 태어난다는 슬픈 사실에 그는 입양이란 기투성으로 화답한 것일까? 따지고 보면 인간도 세상에 피투성으로 내쳐져 정신 없이 살다가 덧없이 죽는다.

박 국장이 입양한 길냥이는 담황색 옷을 입은 한국 재래종이다. 이네 들은 주로 쌀집에서 길러 쌀집 고양이이라 불렀다. 한국 고양이 중 톱 시도 고양이(배트맨 고양이라고도 한다. 얼굴과 등의 반은 검정, 배는 하얗다)와 호랑이 무늬 고양이가 있다. 집에 있는 선배 고양이는 페르시아 친칠라로 참 묘하게 생긴 외국 분이다. 고양이 안구는 투명한 백질 두께가 깊어 태양광이 사선으로 내리비쳐 투명한 눈을 투과하면 신비로운 청보랏빛이 벽에 반사되어 튕겨 나온다. 그런 신비한 빛 무리를 그도 한 번 보기 바란다. 왜 인간이 묘(猫)가 영묘(靈妙)하다 믿었는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어린이재단의 초록우산, 청년사회복지 공동모금, 재능기부 나눔 등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도 하고 있다. 각각의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예를 들어 ‘초록우산’은 어린 아들과 1대1 결연 관계를 맺어 20세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후원금을 보낸다. 아이가 성년이 되면 새로운 어린이와 또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 묵묵히 이런 나눔 활동을 이어가는 어떤 특별한 동기나 믿음이 있는지 물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조금이라도 도움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씩 후원을 하면 마음 한구석 뿌듯해지고 행복해요.” 그런 마음이 어두운 밤 누군가를 위해 한 걸에 켜두는 청사초롱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향을 물었더니 예산이다. 회사 방송 모니터에서 시골 아줌마가 나와 “나만치만 허유!”하는 말투의 충청도다. 그는 예산이 ‘의 좋은 형제’의 고장이라 말했다. 밤새 형제 간에 벅단이 오고 갔던 이야기의 출처가 예산이었나? 아버지는 인쇄업을 잘하여 동네 유지라는 소리도 들었다. 그런데 번 돈을 모두 친척, 지인을 도우며 써버리고 박 국장이 고등학생 무렵 가세는 기울었다. 그래도 남에게 손 벌리고 아쉬운 말을 꺼내지 못하는 부친이었다. 시절은 바위 사이의 다람쥐처럼 재빨리 달아나지만 부모 그림자는 오래도록 자식의 영혼에 자취를 드리우는 법이다. 그는 천성이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쪽보다 늘 몸을 움직여 부딪치는 일을 좋아했다. 그러다 전기설치 호이스트(hoist) 작업 도중 허리를 심하게 다쳐 장애인증 등급까지 받고 말았다. 삼성SDS에 떨어지고 한기에 입사하여 김천대학 융복합에너지공학 학사과정도 무사히 마쳤다. 이력을 요약하면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고 무엇이든 몸과 손 닿는 대로 전속 항진하는 스타일이다.

바쁘게 살아가는 영건이라 결혼할 틈이 없었다고 짐작했는데 아내가 임신 7주라 한다. 축복할 일이다. 지금 살림을 돌보내고 물었더니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이라 한다. 번번이 뽕기마다 틀렸으니 이제 뚝자리는 퍼지 말아야겠다. 주량이 소주 2병이니 술자리는 마다하지 않는다. 술에 취하여 목청껏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다 후련해진다. 이 대목에서 나중에 취재 노트를 살펴보니 아버지의 꿈은 젊은 시절 가수가 되고 싶었다는 메모를 보았다. 미처 부르지 못한 노래(Unsung Song)를 그가 이어가고 있을까?

제주도의 깊고 푸른 밤바다, 은비늘이 달빛에 휘황찬란한 갈치 낚시를 하고 싶은 것일까? 한라산을 바라보며 노란 감귤밭을 거닐고 싶은 것일까? 정확한 사연은 모른다. 그러나 계획에 따르면 어선 면허를 따야 한다는 소망 목록이 있다. 꿈은 실현이든 미현이든 꿈만으로도 의미롭기에 그의 꿈이 이루어지길 응원해 본다. **E&C**

싱그러운 제주 풍경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

푸른 바다와 초록 풀잎을 품은 제주,
시선을 두는 곳마다
눈에 가로막히는 것 없이 시원하다.

내가 걷고 있는 땅과 눈앞의 바다와
그 위의 하늘 사이에 경계가 없다.

자유로운 기분과 행복감에 젖어
함께 걷는 친구들에게
연신 “너무 좋다”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다.

2022년에는 코로나 방해 없이,
제주에서 다시금 무한한 기쁨을 누리고 싶다.



이상현 경영혁신실 사원 / 삼성 갤럭시 S20+

직원 참여 마당에 직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하실 분은 사진과 원고, 연락처를 작성하셔서
sky03tree@kepco-enc.com으로 보내주시면
사보에 소개된 분께 원고료를 제공합니다.

희망과 기대에 한 얼굴로 셀카사진을 찍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합격의 기쁨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주변의 계속되는 축하 세례에 어안이 빙빙하다.
첫 출근해서야 드디어 실감이 나지만 사회생활 첫 걸음을 떼는 어색함과 두려움이 함께 몰려온다.
하지만 회사와 첫 만남, 동기들과 첫 만남이 주는 설렘은 나쁘지 않다. 그래! 이순간만큼은 즐기자! 동기들은 10년 후 20년 후
이 순간을 기억할지 궁금하지만 그래도 기념사진 한장 찰칵! 시국이 시국인지라 마스크를 쓴 것이 아쉽지만 오히려 자신감
상승(?) 물론 승리의 V자로 빠질수 없다. 스마트폰을 들고 동기들과 함께 멋진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려는
이 신입사원의 이름과 소속을 알려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사진 속 주인공을 아시는 직원분은 sky03tree@kepco-enc.com으로 4월 15일까지 정답 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다섯분께 커피 쿠폰(일만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호 사보에는 우리 직원들이 가장 관심을 집중할만한 인물을 어렵게 모셨다. 한기도담 어린이집 원장 이순애 선생님이다. 취재를 하러 가기 전 필자의 유치원 시절을 추억해 본다. 당시 교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누구보다 인자했고 친한 친구 같았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 이제는 그 호칭에서부터 어려움이 느껴진다. 그런 회상과 함께 인터뷰에 들어간다.



먼저 이순애 원장 선생님께 소개를 부탁하였다. 이순애 원장은 모아맘보육재단 소속으로 한기도담어린이집에 파견되었으며, 이번 지면을 빌려 처음 공개하는 사실지만 두 어린이집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 유아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교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능력자지만, 의외로 학부는 음대를 졸업하였다고 한다. 특이한 이력에 그 이유를 물으니 음악을 직업으로 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적성에 맞고 이걸 직업으로 하면서 더욱 행복함을 느꼈다고 한다. “천직이라는 게 있다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이 일이 좋아요.”라고 답한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질문하니 처음 부임하였을 때 자신의 교육철학에 따라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학부모와 교사의 일대일 면담을 막았다. “선생님은 모든 아이를 보살펴야 해요. 학부모와 일대일 면담을 하면, 그 시간 동안은 한 아이 외에 다른 아이들은 방치됩니다.”라고 하며, 학부모의 요구와 민원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아이들을 우선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과 원칙에 기초해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추진하였다고 한다.

한기도담어린이집 이순애 원장



아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철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였다. 한기도담어린이집은 ‘아동중심 보육철학’에 기초하여 아이에게 가장 우선이 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방침과 내용을 결정한다. “간혹 부모가 원하는 방향과 아이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아이들에게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을 우선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어린이집의 커리큘럼은 ‘놀이중심’으로 “아이는 놀이를 통해 학습하고 경험을 쌓으며 지식을 구성하기에 놀이를 통한 경험을 늘릴 수 있도록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지원해야 해요”라고 한다. 특히 교사가 아이들 놀이의 맥락을 파악하고 교육적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독려하는데 특히 힘쓰고 있다. 한편 영화관 체험, 캠핑 체험과 같은 놀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이들 경험의 폭을 넓히는 양질의 교육을 한다는 어린이집 자랑도 설명에 살짝 섞는다.

게다가 교사들에게 갖는 관심도 각별하다. 아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교사들의 학사나 석사학위 취득을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선생님들이 작성한 모든 보육일지를 일일이 읽어보고 손수 첨삭을 한다고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떤 관심과 교육을 해야 하는지 지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사의 자질도 향상된다. 매일 철야를 하는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런 수고스러움은 마다하지 않는다.

한기도담어린이집 원장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없는지 물으니,

어느 원생 한 명이 갑자기 ‘원장 선생님 표정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손을 잡아 줄게요.’라면서 원장 선생님 손을 잡았다고 한다. 기특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항상 아이들이 나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한 순간이라 어떤 순간보다 뿌듯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을 엄청 잘 따르고 좋아한다는 자랑도 덤으로 붙인다. 평가 수검과 보육일지 첨삭 등으로 매일 10시 넘어까지 일하는 철야의 연속이지만 아이들 미소 한 방에 피로가 가신다. 그야말로 천직이다.

이순애 원장은 회사에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한기도담어린이집은 지난해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다.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원장 선생님의 확고한 교육철학과 교사들의 높은 자질에 때문이긴 하지만 우리 회사가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무엇보다 다른 공공기관은 분담금을 내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기의 경우에는 직원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므로 회사의 육아와 보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보육은 부모와 어린이집이 함께 그리고 더 넓은 관점에서는 가정과 회사 지역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힘써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곧 자신에게는 비타민이고 아이들이 좋은데 이 유가 없다는 이순애 원장 선생님! 앞으로도 아이들을 사랑과 함께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란다. **ES&C**



아이와 계절마다 가고 싶은 상주 나들이

논밭이 펼쳐진 곳에서 인생의 3분의 2를 살았다. 대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의 풍경과 정서가 그리워 다시 소도시로 왔다. 자연의 정직함과 성실함, 모든 존재에게 각자의 때가 알맞게 있다는 사실,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 같은 걸 농촌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도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을 자주 접하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아파트에서 편리한 문명을 누리며 살다 보니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시골의 가치 있는 경험만 쏙 빼 감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어 다녀왔다. 경북 상주의 청년 농부가 만들고 운영하는 스테이지 파머스룸이 그곳이다.

농촌에 진심인 청년 농부가 만들어가는 공간, 스테이지 파머스룸
스테이지 파머스룸은 소수 인원만으로 진행되는 프리미엄 농촌 체험 공간이다. 벼와 흙, 식물, 삼 등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로 공간이 꾸며져 있었다. 이곳 대표님은 자신을 농부라고 소개하였다. 블루베리 농사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농촌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어 이 공간을 열었던 것이다. 농촌에 이토록 진심인 분이 감각까지 좋으니,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직접 만지고 느끼며 다채롭게 즐기는 농촌
농작물을 직접 만지고 요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계절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제철 열매들이 다르기에 매 계절 다채로운 경험이 가능하다. 상주에서 난 블루베리로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먹었다. 흙과 땅에서 자란 식물들을 만지고, 그 열매로 다채로운 활동을 하니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즐거움이었다.

옆 건물에는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었고, 이곳에 있는 동물 대부분이 인간에게 이용되다가 그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버려진 친구들이었다. 그중 말은 경주마였다가 무릎 부상을 입어 버려질 뻔한 말들을 데려온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의해 이용만 당하다 외면받은 동물 친구들이 깨끗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쉬며 지내는 모습이 따스했다. 동네 사는 길고양이들까지도 총출동하여 제 집처럼 편하게 쉬고 있었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배려받는 곳이었다.

양손 무겁게 돌아가는 길

다양한 체험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가 되니 집에 가지고 가야 할 게 양손 가득했다. 꼭 시골 할머니 댁 놀러 왔다



가 돌아갈 때면 양손 무거워지는 그런 푸근한 정이 느껴지는 지점이기도 했다. 케이크, 고구마, 샤인머스켓, 블루베리 나무 화분을 들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얻은 것이 꼭 이 맛있는 농작물 뿐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흙을 만지고, 살아 있다고 느껴지는 식물들을 만지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을 만나는 그 모든 시간이 건조한 일상에 생명의 활력을 가져다 주었다.

'카페'라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명주정원

아무리 소도시가 좋아도, 문화적 인프라가 풍성하지 않은 작은 도시에 살다 보면 다채로운 경험에 대한 갈증이 깊어진다. 상주에 그런 갈증을 달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명주정원'이었다.

명주정원은 공원 외부와 내부가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다. 심지어 바닥까지. 실내는 따뜻한 벽돌과 원목 등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해 아늑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카페 공간이 동시에 작은 도서관이기도 해서 벽면에 꽂힌 책들을 보기도 좋았다. 이 공간에서는 열린 콘서트, 전시, 바베큐파티, 한복 체험, 팝업 와인바, 팝업 다이닝, 팝업 사진관, 민화 부채 만들기 클래스, 심리수업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비정기적으로 자주 열리고 있었다. 카페 이상의 장면들이 펼쳐지는 곳이었다.

'명주정원'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정원'이 하이라이트인 공간이었다. 넓은 잔디 정원 위로 반짝이는 꼬마전구가 달린 무대도 있었고, 야외에는 영화를 볼 수 있는 메인 영화관도 있었다. 잘 가꾸어진 정원을 아이가 신나게 뛰놀았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도 좋을 듯했다.

계절마다 다르게 펼쳐질 장면이 기대되는 상주를 곧 다시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며 돌아온 나들이였다. **E&C**



“지난주 선배님이 ‘아직도 이걸 몰라?’ 하시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별로 가르쳐 준 것도 없으면서.... 자꾸 이러니까 출근하기 싫어요!” (K사 입사 6개월 차 팀원)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배경이나 이유 없이 막 던질 때마다 진짜 힘 빠져요. 가끔 질문하면 ‘나도 몰라. 일단 해봐.’라고 해요. 진짜 황당하고 신뢰가 안가요.” (S사 선임)

“다들 자기가 제일 바쁘다고 합니다. 갑자기 떨어진 업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눈치보다 결국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판단 하고 지시한다고 해도 어느 한쪽은 늘 불만을 갖더라고요.” (L사 팀장)

“같은 회사,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데 부서들끼리 정보 공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M사 임원)

[참고자료] 개인과 조직을 살리는 갈등관리 연컨플릭(박효정 외, 2020, 복인사이트) / 조직 갈등관리 트레이닝북(박효정, 2020, brainLeo)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갈등관리의 질을 좌우한다

직장인이라면 위의 내용 중 하나 정도는 겪어 보았을 것이다.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누구나 갈등 이슈가 있다. 사례처럼 조직 맥락에서 형성된 다양한 갈등을 조직 갈등이라고 한다. 조직 갈등은 조직 내외의 이해 관계자들이 각자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그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편한 감정이 개입되는 상황이다. 두 명 이상 모인 조직이라면 피할 수 없는 갈등이기도 하다. 어느 조직이나 갈등은 있고 대처방식도 다르며 갈등을 장애물로 보는 등 부정적 인식 때문에 회피하거나 과잉 대응하기도 한다. 그러나 갈등을 업무 목표를 추구하고, 일을 추진하며 만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즉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까’에 집중한다. 이와 같이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처방식에 따라 구성원 간의 관계와 업무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 관점으로 갈등을 바라보는가?

필자는 다양한 기업의 갈등관리 컨설팅과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갈등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갈등 상황을 해석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개인이나 팀, 조직의 관리 역량에 따라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갈등관리에 능숙한 개인과 팀이 주로 활용하는 갈등관리 방식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 만들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당신은 갈등 관계의 불편한 상황을 만났거나 부정적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첫 째, I-OK, YOU-OK.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둘 째, I-OK, YOU-NOT OK. “너 때문이잖아.” 일단 상대방 잘못이 먼저 눈에 보인다.

셋 째, I-NOT OK, YOU-OK. “아, 내가 또 뭘 잘못했지?” 자책부터 한다.

넷 째, I-NOT OK, YOU-NOT OK. “아, 몰라 몰라, 일단 피하고 보자.” 회피한다.

대체로 갈등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이 4가지 중 한 가지 반응을 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건강하게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평소 나의 습관적 반응이 먼저 나올 수 있다. 나의 습관적 반응이 어떤 것인지 알면 갈등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습관적 반응 방식이 나와 타인에게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면 상관 없지만 무조건 남 탓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자책 하거나 습관적으로 회피만 한다면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나의 습관적 반응들이 타인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의 습관적 반응 방식은 유아 시절에 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습관적 방식을 의식적 방식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에릭번을 비롯한 많은 심리학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 노력이 있다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반응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끊임 없이 학습하고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을까?

그 학습과 변화 과정을 지금부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 만들기”라고 부르겠다.

갈등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감정대로 바로 행동에 옮기는 습관적 반응이 일어날 때 다음 순서대로 생각의 단계를 거쳐보자.

1. 불편한 감정이 일 때 잠시 멈춰서 “현재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나?” 질문을 한다.

이 질문을 통해 현재 나의 반응 방식을 객관화한다. 즉 나와 상대를 신뢰하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혹은 타인을 비난하거나 나를 자책하는가? 습관적 회피를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자.

2. 내가 현재 느끼는 감정은 나의 신념이나 삶의 태도에 의한 습관적 반응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현재 내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 무엇인지 느끼고 가라 앉힌다.

3. 그리고 차분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나와 상대를 신뢰한다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나의 입장과 상대의 입장은 어떻게 다르지?”

“내가 상대라면 어떤 감정이 들까?”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행동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4. 그리고, 이 때 나의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한다.

이처럼 우리의 습관적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 만들기 훈련을 하면 의외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된다. 공간 안에서 과연 무엇이 나와 타인을 위해 좋은 선택인가?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나의 자율성의 영역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지혜로운 갈등 해결의 출발이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 짓는다”고 말했다. 그의 메시지가 갈등 상황에서도 도움이 된다. 그 공간에서 선택이 바로 갈등 관리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E&C**

경험 많은 70세 인턴, 첫 출근 합니다 영화<인턴>

영화 '인턴intern'은 주인공 벤의 평화롭지만, 어딘가 파분해 보이는 일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퇴직 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사는 70살 노인이 되어버린 벤. 길을 걷다 우연히 본 시니어 인턴 공고에 흥미를 느껴 지원하게 된다. 면접을 본 끝에 합격하여 또 한 번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거기서 30살의 젊은 여성 CEO 줄스를 만난다.



줄스는 작은 쇼핑몰에서 시작하여 창업 1년 반 만에 직원 200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시킨 능력 있고 열정적 여성이다. 항상 바쁜 하루를 보내지만, 성공궤도에 오른 자기 일에 만족하고 있다. 특히 딸이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들에게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자 투자자들은 체계를 잡기 위해 줄스를 대신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길 원한다. 더군다나 바쁜 회사 생활로 가족들에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결과로 가족들과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 어려움에 봉착한 줄스에게 벤은 진심 어린 조언을 통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준다. 사실 줄스는 시니어 인턴을 고용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부모님과 비슷한 연령대인 벤을 대하기가 어려웠다. 어떻게 그들은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한 동료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건 벤의 연륜에서 나오는 배려심 때문이다. 영화 속 벤은 항상 인자한 미소를 띠고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벤과 대화하는 영화 속 다양한 인물들이 그의 위트와 미소를 보며 위로를 얻고 안정을 되찾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어주지만 절대 자만하지 않는 어른의 면모도 함께 드러낸다. 벤의 이런 모습에 줄스도 마음의 문을 열었다. 영화 속에서 줄스는 시간적 여유를 위해 CEO를 고용하는 편이 좋지만, 자신이 일군 회사의 정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심경을 벤에게 토로한다. 그러자 평소 줄스를 가까이서 지켜본 벤은 이런 말을 건넨다. “만약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확신이 있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일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말에 줄스는 환한 웃음으로 대답한다.

‘인턴’은 주제를 강하게 드러내는 영화는 아니지만, 이야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메시지를 슬며시 드러낸다. 영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평소 경험했던 문제를 극중 인물도 겪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 결혼생활, 세대 간 갈등 등 여러 가지 현실에서 접하는 문제들이 그것이다. 특히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벤을 통해 은퇴 후 삶에 대해 생각해보게끔 한다. 첫 장면에서 벤은 분명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 속에 있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인생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극 중에는 동시에 새로운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벤은 인턴에 지원하기 위해 이력서 대신 지원 영상을 제작해야 했지만, 기계 다루는 것이 서툴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회사의 요구에 맞춰 최선을 다해 제작하였다. “USB가 뭔지 몰랐지만, 손자에게 물었죠”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지만,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배우려는 태도가 나타난다.

영화를 감상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현재의 소중함과 행복을 느끼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로버트 드니로의 가볍지 않으면서도 위트를 잃지 않는 중후한 매력과 앤 해서웨이의 콤비는 덤이다. 이 영화는 ‘성숙한 인생 선배의 지혜로운 한마디 조언’이 필요할 때, 그리고 후배나 동료에게 지혜로운 한마디를 어떻게 해줄지 고민이 된다면 이 영화를 감상할 것을 추천한다.

저점매수 (Buy-the-Dip)의 유혹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본능에 끌리기 때문이다. 바닥에 사서 머리에 팔면 최대이익이다. 차트를 보면 산을 가파르게 오르는 주식은 비싸 보이고 산을 반쯤 내려오거나 아래턱까지 내려앉은 주식을 보면 마음이 괜히 동한다.

유튜브에는 '바닥을 확실히 알아보는 징후'에 관한 기술적(technical) 분석이 많다. 볼린저 밴드 하단이나 캔들 양봉이 그런 신호라고 주장하는데 데이터에 맞춘 사후 해석일 뿐이다. 단언컨대, 아무도 주가의 밑바닥을 모른다. 오르면 더 오르고 내려면 더 내려가는 탄력성이 실제 가치와 이격을 벌인다. 이 때문에 종목 빈부 차가 생겨난다. 어떤 종목이 이유 없이 내려가면 이유 불문하고 더 내려가는 것은 되먹임 효과이다. 마이크의 작은 소음이 스피커를 통해 계속 순환하면 어느 순간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로 증폭된다.

저점매수는 안전 투자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불러와 자주 손을 대거나 몰타기를 한다. 모멘텀이 좋은 주식은 연속 10~20% 하락을 두들겨 맞아도 반등의 힘도 역시 좋다. 비싸다고 관망하던 사람이 매수 방어군으로 나선다. 2021년 빌 황(Bill Hwang)이 세계 증시를 뒤흔들어 놓은 적이 있다. 하루 사이 ViacomCBS와 Discovery 주가가 산을 두 동강 낸 듯 90도 절벽으로 떨어진 날이다. 며칠간 스위스, 일본, 미국의 관련 은행들도 비틀거렸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저점매수에 나섰다. 아직도 주가는 혼절 상태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투자법이 있다. 적당히 몰타기 하여 준비 정신으로 버티면 손해는 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런데 얼마 정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기회 원가를 감안하면 물에 잠긴 기간만큼 손해를 본다. 정신위생 상 아픔으로 남아 해롭기도 하다. 앰웰과 텔레닥(원격진료), 질로우(부동산 테크), 줌(화상회의), 로쿠(영화 스트리밍)는 저점매수와 몰타기를 하다 포기한 종목들이다. 최근에도 떨어지는 걸 보고 손절에 위안을 삼는다.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주가'와 '52주 최저가를 뚫고 내려간 주식' 중 어떤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가? 역시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주식이 유리하다. 싼 걸 싸게 샀다가 싼 값을 치른다.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다. 시가총액, 전년도 성장률, 주가 상승률이 최고로 높은 주식만을 스크린(선별)하여 집중 투자한다. 이들은 저점매수를 회피한다. 오를 이유가 있어 오른 것이고 내릴 이유가 있어 내려간 것이다. 호랑이 등에 타는 게 바닥을 기는 뱀의 머리에 얹는 것보다 낫다.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래도 새우깡에 손이 가는 게 사람이다. 저점매수를 잘하여 짜릿한 쾌감을 맞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조금이나마 실패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IPO(기업공개) 주식, 첨단 미래 테크 주식들은 가능한 저점매수를 피해라. 이런 종류는 변동성이 극히 심하다. 성공 가능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자신의 예지력으로 짚은 주식은 장차 폭등이란 달콤한 설탕이 발려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판단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때를 인간은 알지 못한다. 이런 주식들은 관찰하다가 오를 무렵에 매수하는 편이 좋다.

추천 상승여력(Upside Potential) 종목은 매력적으로 보인다. 특히 그 수치가 60% 이상이면 달콤해 보인다. 이런 대상 중 1/4 정도만 상승한다. 저점매수의 욕식 가리기가 어려워 더 신중한 선별이 필요하다. 최소한 PER, ROE 같은 수치가 나빠 보이는 것은 걸러내어 피하자. 처음 소량만 샀다가 추이를 관망해 보고 예상과 달리 떨어지는 폭과 기간이 길어지면 애착을 끊고 정리한다. 몰타기는 10%~15% 내려오는 분기점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원칙을 세운다. 여차하면 버릴 때 손실을 최소화한다.

저점매수는 실제 숨겨진 욕심으로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떨어지는 속 사정은 회복불능 국면에서 뒤늦게 알려진다. 사업모델의 취약성, 외부환경의 급변, 내재적 불능 등 이유는 다양하다. 눈치 빠른 액티브 펀드와 개미들이 밤마다 털고 도망가는 주식, 자신만 모르고 저점매수를 해보았자 소용이 없다. 낙폭이 크다고 반사적으로 매수하지 말고 떨어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 단, 큰 조정기에 지수 전체가 10%~20% 하락하는 약세장에서 줍줍모드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른 논리가 성립한다. 투자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 **E&C**

근대라는 테마로 엮어진 목포

동사가 서독의 고장을 방문하였다. 떠나기 전 여행 정보를 따로 구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알면 아는 것만 보이고 모르면 우연에 맡긴다. 목적과 일정에 얽매이는 대신 자유롭게 다녔다. 여행 중 목표는 ‘근대’라는 주제로 꾸민 도시란 걸 알게 되었다.



이난영의 ‘목포는 항구다’, ‘목포의 눈물’ 노래를 어디서나 들었다. “유달산 잔디밭에 놀던 기억~”을 간직한 사람에게 고향을 떠올리는 노래이다. 노적봉은 부산 지형에 비교하면 용두산공원 위치이다. 노적봉 아래 목포 도심이 펼쳐지고 시장이 생겨나고 바다와 접해 있다. 유달산이 병풍처럼 둘러막아 산과 바다 사이 땅이 협소하여 바다를 매립한 것도 두 도시의 공통점이다. 유달산은 동서 케이블 2개 라인을 설치하여 케이블차가 유성기 판 돌 듯 공중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관광 안내판에서 **삼학도와 노적봉** 전설을 읽었다. 한 남정네를 동시에 사모하여 상사병이 든 여인 셋이 나오고(나중 죽어 학이 된다), 노적봉 정찰을 나온 왜군이 조선 여인의 미모에 홀려 임무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적혀있다.

목포근대역사관 입구에는 ‘호텔 델루나 촬영지’ 현수막이 붙어있다. 1관 건물을 개보수 중이라 반쯤 천막에 휘감겼다. 2관 건물은 아래쪽 마을에 조금 떨어졌다. 그 당시 일본어는 국어였고 우리말은 조선어로 따로 가르쳤다. 조선어 교과서는 국한문 혼용체로 인쇄하여 꽤 어려운 한자를 그대로 실었다. 내용은 숙자와 정화가 김치 담그러 가면서 나누는 이야기다. 국어 첫 페이지는 ‘와타쿠시노홍(나의 책)’으로 기초문법부터 가르쳤고 카타카나로 표기되었다. 목포근대역사관 뒤편 일본군이 구축한 **방공호**가 있다. 목포 앞 고하도에는 터널 20개를 만들어 어뢰정을 숨겨놓고 미군 함정이 오면 자살특공대처럼 돌진할 계획이었다. 일본이 패망할 무렵 제주도, 목포, 여수, 부산 등에 이런 동굴이나 지하 병참고를 여기저기 파 놓았다. 근대를 생각해 본다! 중국과 조선은 전통과 관습에 매달려 외부 충격으로 무너지고 나서야 근대를 강제로 주입받는다. 난세는 머리와 꼬리가 뒤엉켜 뒤죽박죽 바뀌는 시대이다. 태평천국의 난이 그러하였듯, 서구문물의 서학에 대한 동학도 천주교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동학 봉기 관련 사진을 보면서 그때 관군과 일본군에 잡혀 온 봉두난발 얼굴들은 그후 어떻게 되었을까? 쑥대머리 귀신형용 적막옥방 찬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였을까? 전통을 숭배하는 자에게 역도의 무리이지만 죽창을 들고 나선 사람은 푸른 의(義)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꿈을 꾸었다. 전시물 태극기에는 “不遠復(멀지 않아 광복이 오리라)” 붉은 글씨가 쓰여 있다. 사람들은 얼만큼 이걸 믿고 있었을까?

다음은 ‘**소년 김대중의 공부방**’을 찾았다. 주택가 작은 언덕에 있다. 근처 수군통제사처럼 보이는 성벽이 보였다. 하의도에 태어난 김대중은 목포로 건너와 하숙하였다. 가족사진을 보니 아버지를 빼닮았다. 여태 건물이 남아있지 않으니 그 터에 세워진 기념관이다. 목포상고 검정 교복과 책상이 간소히 놓여있다. 창문을



통해 목포항이 아늑히 내려다 보인다. 소년의 눈에는 불 밝힌 어선들이 정박한 항구가 별천지처럼 보였다. 대개 인물은 변방이나 주변에서 활동하다가 차츰 원형을 그리며 중심으로 옮겨가는 궤적을 그린다. 그다지 커 보이지도 않는 목포항을 황홀한 신세계로 바라보던 소년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다. **고하도**를 찾는 이유는 전망대에 컨테이너를 여러 채 들쭉날쭉 포개어 유리창을 내고 6층 높이까지 쌓아 올린 구조물 사진을 보자마자 호기심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전망대는 이순신 판옥선을 모티브로 삼았다. 컨테이너가 삐죽 튀어나온 부분은 스카이 워크로 바닥이 투명하다. 각층마다 6평 규모의 컨테이너를 지그재그 형태로 쌓아 올려 철제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오른다. 전망대 아래는 바다 위 해안산책로를 쭉 이어 놓았다.

목포문학관은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의 기록물을 모아 둔 곳이다. 김현이 죽기 전 마지막 남긴 일기를 기억한다. 초채해진 얼굴을 거울 속에 비추어 보다가 자신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기록이 아직 남아있다. 김현은 이 땅의 소설가, 시인과 씨줄 날줄로 엮인 평론가다. 김지하가 김현에게 보낸 난(欄) 그림과 글씨, 주변 인물들이 남긴 크로키 인물화가 볼만했다. 김현은 “문학은 써먹을 데가 없어 무용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말했다. 김현이 중학교 시절 쓴 ‘눈을 감으면’ 시 한 수 감상했다. 그 시에 담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쓸쓸한 경지”는 아마도 목포 시절부터 켜튼 감수성이었을까?

‘중간’이란 짜장면이 궁금하였다. 현지인이 애용하는 **태동반점**을 골랐다. 7,000원 중간을 주문하면 탕수육, 찜뽕이 서비스로 나온다. 중국집에선 보기 드물게 김장김치, 총각김치도 나왔다. 시골 면사무소 근처에 하나 있을 법한 허름한 중국집이다. 보통 짜장면은 짜장이 살짝 흘러내려 그릇에 자박자박 남는데 중간에는 국물이 남지 않는다. 국수처럼 면발이 가늘다. 짜장면 면발 굵기를 기억하는 혀와 입은 “어, 국수에 짜장 비벼 먹나?” 놀라는 것 같았다. 탕수육, 찜뽕까지 해치우면 배가 무겁다. 짜장면에 프라이 계란을 얹어 주는 곳을 오랜만에 만났다.

언덕 위 솟아난 바위 위에 쌍둥이 종탑과 십자가가 눈에 띄어 목포 **가톨릭 성지**를 찾았다. 산정동 성당은 최근 완공되었는지 높고 웅장했다. 유달산 케이블카를 타지 않아도 종탑까지 오르면 목포 시가지가 훤히 내려다 보인다. 성당 내부는 단아하고 고요하다. 햇빛이 스며들 컬러 스테인글라스에 새겨진 성화를 한편씩 보았다. 아일랜드, 미국 시카고에서 온 신부들이 일제강점기 고난을 겪다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끌려가 대전에서 처형되었다. 래지오 마리에 기념관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드넓은 광장에는 은혜의 성모상이 보인다. 기념관에는 김대건 신부의 유골도 봉안되어 있다. 자기 고향을 등지고 멀리 이 땅에 건너와 갓은 고초를 겪다가 살해된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E&C**

Editor's Letter

출판원고에서 '네비게이션'을 모두 '내비게이션'으로 교정하여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자가 맞는 걸 고쳤다고 항의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 후 시내를 돌아다니며 간판을 보니 90%가 '네비'로 적혔고 네이버를 검색해도 '네비'가 더 많습니다. 눈에 익다 보면 틀린 표기가 더 당당히 주인 노릇을 합니다. '컨텐츠'는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표준어가 '콘텐츠'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기는 합니다. 귀 기울여도 그게 '컨텐츠'로 들리지 '콘텐츠'로는 안 들립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무렵 한국은 영국영어에서 미국영어로 축을 바꾸었습니다. 국민의 90% 이상은 미국영어를 구사하는데 표기법은 옛날 방식이라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배전함을 열면 'Bus Bar(전선 역함의 쇠막대기)'가 보이는데 보통 '부스 바'라고 말합니다. 처음 이게 부쓰(booth)를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영어에 익숙한 분은 이걸 '버스'라 발음하는지 압니다. "그걸 왜 부스로 말하지?," '어' 발음이 없는 일본인이 어쩔 수 없이 '부스'로 말한 것뿐입니다. 이런 표기법은 편집자가 아니라면 지나갈 일이지만 점검하다보니 혼자 고집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첨단 학문과 지식은 외국에서 왔습니다. 빨리 베끼는 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걸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정확한 한글로 표기하는 것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차츰 혼란이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편집부는 오늘도 표기법을 공부하고 체크해서 올바른 한글사용을 위해 이 시간에도 고집(?)을 부려봅니다.

당첨자 발표



◆ 이달의 한컷! : 커피쿠폰 1만원

- 최영환 (기술전략실 대리)
- 강정현 (기술전략실 사원)
- 김준영 (기술전략실 사원)
- 김정만 (원자력연구실 부장)
- 국경채 (기술전략실 사원)

◆ 한기인의 메아리 : 커피쿠폰 3만원

- 이기영 (안전관리실 실장)
- 강태교 (원설단 기계설계그룹 부장)
- 이찬희 (글로벌마케팅실 대리)

◆ 독자의견 : 도서문화상품권 3만원

- 김은경 (사외독자)
- 유재범 (사외독자)
- 강예숙 (사외독자)
- 이현정 (사외독자)
- 박명애 (사외독자)

원고모집



■ 여행이나 맛집, 반려동물, 취미 등과 같은 직원 여러분의 또 다른 일상을 소개하실 분을 모십니다. 원고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사보에 소개해 드립니다.

▶ 분 야 : 또 다른 일상을 소개하는 에세이

▶ 원고 분량 : A4, 2면

■ 평생 정을 나누며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절친을 찾고 있습니다. 본인과 친구 1명이 함께 2인 또는 3인으로 산책, 식사하면서 즐겁게 대화 나누는 대담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분 야 : 기획코너 ▶ 원고분량 : A4, 2면

원고로 제공, 신청하시고 계획 제출 후, 기타 지원 방안 협의

■ 여러분의 추억이 깃든 사진이나 짧은 에세이를 적어 보내주시면 사보에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분 야 : 기획코너 ▶ 원고분량 : A4, 1면

원고로 제공합니다.

독자의견 및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원고는 4월 15일까지 sky03tree@kepc0-enc.com으로 보내주세요. 원고나 독자의견을 보내주실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꼭 보내주셔야 상품 전달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호 사보를 읽고(독자의견)



• 오는 4월부터 시행될 '데이터기본법'의 제정 의의에 관한 기사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가 국력'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화를 통해 이룩했던 도약을 또 다시 우리 역량으로 이루어야 하는 분야 역시 디지털이라는 제언(提言)은 우리 모두가 경청해야 할 화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열강이 디지털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피땀 어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도 디지털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가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 디지털 최강국이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김은경 서울시 성동구)



• 한국전력기술의 바라카 원전수주의 쾌거, 영남대 김영수 교수님의 기고를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교수님의 일대기에서 볼수 있듯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던 최빈국가 대한민국이 이제 원전수출의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날수 있었던 것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연구에 매진했던 우리 민족의 저력이 그 원천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으로 다시금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르네상스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한국전력기술이 그 첨병 역할 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유재범 사외독자)



• 연초가 되면 누구나 새해의 기대와 다짐으로 신년 계획을 세우지만, 새로운 해에 익숙해지다 보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한기인의 메아리 설문조사 '2022년 기대의 순간'을 주의 깊게 보며 이번에는 '꼭!'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건축정책으로 어렵다는 예측이 많은데 모두들 '파이팅'하시길!
(강예숙 사외독자)



•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깨달은 감각 유지 방법을 보며 오랜만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익숙했던 것을 깨고 새로운 것을 향해 뛰어드는 일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지만, 또 그 만큼의 감각도 느낄 수 있다는 말이 새삼 공감되더군요.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이제 코로나 종식으로 낭만과 설렘이 가득한 해외여행이 가능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브로브니크의 멋진 거리를 만끽하며 그간의 팍팍했던 일상을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작가의 흔적'을 보다 보니 우선 사전 준비라도 차근차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생활에 활력도 생기는 것 같네요.
(이현정 사외독자)



• 그동안 한국전력기술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는데 KEPCO E&C news를 읽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줄 미처 몰랐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다짐대회 시행,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보건복지부장관표창수상, DECON2021 원전해체 국제 컨퍼런스 개최...등등 이루 말할수 없는 업적에 그저 고개가 고덕여 지네요. 이렇게 항상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선두주자인 한국전력기술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저 역시 앞으로는 한국전력기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성원을 보내드리리라 약속드립니다. 다음호는 3,4월 봄호이네요. 봄의 싱그러운 향기를 제일 먼저 느끼게 해주시고 후반부에는 생활면을 늘려주세요.
(박명애 사외독자)